

## 정정업 목판화17점 (2016 작성)

목판화를 정리하다보니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총17점이 남아있네요

분류해보니 살아온 시점들을 참 딱딱 딱딱 작업하려 애 쓴 흔적이 보입니다  
작품의 연대기보다는 삶의 기록에 가까운...

1992년 본격적으로? 페인팅작업을 하기 위해

지역탁아소 연합-어린이 판화달력을 끝으로

목판화를 묶어두었습니다

살아온 내력이 작품 되기의 당연함

그러나 그것 만으로의 빈곤함

그 빈 곳을 찾아다니기가

이후 작품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목판화작업이 있었던 그 시절로 안내합니다 ^^



밀알 1987

대학을 갓 졸업한 작가의 작품이라 하기엔 왠지 올드한 느낌?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맞잡은 손입니다  
격변기 안에서 결의를 다지고 밀알이 되고자하는...

계몽의 냄새가 우직합니다 ㅎㅎ

그러나 작가의 생태적 징후도 벌써 보여지는 ...



올려보자.1987

두령시절...인천으로 가서 현장에 취업하고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여공은 옛되고 수줍은 ....  
어느 순간 결연함으로 노래하는  
큰 물결 같았습니다



잔업 없는 날. 1987

일주일에 한 두 번 있는  
잔업 없는 날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공단에 어린 소녀들의 청춘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면장갑 1987

점심시간 공장 담벼락에 붙어  
빨래 줄에 널려있던 목장갑을 보며 해바라기를 합니다  
내가 저것을 그려 주리라 맘 먹으면서...  
목장갑을 보면 언제나 애뜻합니다  
빨래 줄까지 그려 넣은 것은  
현장의 노동뿐 아니라 일상의 노동까지를 포함합니다  
내판화작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1988. 여성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전

"우리 붓물을 트자" 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입니다

당시 노동조합조합원들의 결혼선물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신혼 방에 걸어 놓고 신랑들은 아침에 한번 씩 읽고

출근해야 했다는 후문^^



상황이 어려울수록  
비판보다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활의 근원, 삶의 저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림은 단순하고 밝았던^^



나리꽃 1987

"우리 뚫물을 트자"전에 출품 했던

나리꽃이라는 시를 읽고 그린 것인데 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치열한 상황 일수록 다정함이 그리웠나 봅니다



감자꽃 1988

여성시와 그림의 만남 "우리 뚫물을 트자"전에  
출품 했던 시화  
공지영씨가 시도 썼었지요



규찰을 서며 1989

1989년 공단에서는 파업이 일상이 되어  
우리는 일상을 지켜야했습니다  
씩씩하고 당당했던 그녀들



지리산 산행 1988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했지만

한국사회에 지리산,남부군,태백산맥등의 소설이 발표되면서 지리산 붐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삼삼오오 지리산을 일삼아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산 1988

함께 하고나면 언제나 혼자서도 오르고 싶었던...



걸음마. 1992

1990년 초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 획을 긋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와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하나 둘 태어나고  
또 다른 일상과 협상, 전쟁, 실험이 계속됩니다



아빠와 함께 1991

작은 바람도 그리면 이루어 질 줄 았았던...



나물캐기 1991

그리고보니 그 때도 나물을 캐었네요  
도시외곽의 빈곤한 야산자락을 찾아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놀이삼아...



1992 추수

사실 이 그림은 아주 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셋째 딸을 낳았다고 우울해 하는 친구를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여서 제목도 추수! ㅎㅎ  
소박하기 이를 때 없지만 ...  
판화는 선물하기 좋은 매체



공부하는 어린이들

A.P. 1972



엄마들과 탁아소를 만들고  
해 본적도 없는 공동육아를 실험하던 시절입니다  
엄마도 초보 ,아이도 초보, 아빠도 초보,  
그러나 삶의 형식을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만은 넘쳤습니다  
육아와 가사, 개인작업, 인천미술패 활동, 여성미술연구회등  
동분서주하던 와중에 판화달력이 나왔습니다





계몽을 넘어 쉽게 설득하던 시절이 가고 있었습니다  
활동으로 인정되던 미학적 논쟁도 피해 갈 수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예술의 다른 국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제화 되가는 판화형식을 탈피하기 위해  
작은 결단 하나를 내렸습니다  
판화를 접어두고 다른 도전을 시작한 시점입니다